



# “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광대로 남을 것”

## 우리시대 재야 소리꾼 \_ 임진택

글 김미영 kimmy@hani.co.kr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지난 10년 동안 그는 전국을 돌며 지역 축제를 일궜다. 과천시계마당극큰잔치, 세계야외공연축제, 서울통과의례페스티벌, 전주세계소리축제, 경기실학축전, 가야세계문화축전, 동학축제

등 그의 손길을 안 거친 축제가 없을 정도다. 1970~90년대 암울했던 시절, <소리내력·오적> <오월 광주> <풍바다> 등 군사독재 정권을 꼬집는 창작판소리로 시대를 조롱했던 ‘재야 소리꾼’ 임진택(59)씨.

축제 연출자라는 오랜 외도(?)를 끝내고, 10여 년 만에 다시 ‘광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1999년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임진택의 판소리 세 바탕’ 공연을 끝으로 판소리를 작파했던 그는 5·18 3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윤상원을 그리며 <오월 광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부터 그는 우리 역사인물과 유적, 문화인물 12명(개)의 삶과 시대상황을 엮어 새롭게 창작 판소리 열 두 바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세종대왕, 이순신, 정약용, 전봉준, 남한산성, 비무장지대 이야기 등 6개월~1년마다 한 작품씩 창작 판소리를 선보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올해 초 첫 번째로 3시간짜리 ‘백범 김구’를 완성해 공개했는데, 백범 서거 61주기인 오는 6월 26일 백범김구기념관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99년 동숭아트센터 공연장의 빈 객석 보며 한계 느끼고 판소리 작파, 전국의 내로라하는 축제 만들었지만, 결국 10년 만에 소리꾼으로 돌아와**

백범 김구 선생 이야기를 첫 번째로 만든 이유는 뭘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백범이나, 몽양 여운형이나 고민했었습니다. 백범이 우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도입니다. 백범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이념보다 민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지요. 지금도 여론 조사를 하면 백범이 항상 존경받는 인물 1위로 꼽힙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족정기를 세우는 데 교육적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사설을 쓰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인물이기도 하지요. <백범 일지>만 해도 수십 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다음으로는 남한산성을 소재로 한 판소리가 될 건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소리를 작파했던 이유를 물었다. “99년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할 때 사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공연하면 관객도 많았고, 호응도 높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공연장 500석 객석에 절반도 못 채운 거예요. 그때 판소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 소리는 잘 먹히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소리를 원하지 않네.’라고 실망했지요. ‘판소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잃은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했지요. 판소리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이때입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축제와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직접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창안하기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했는데, 결국 모든 축제에서 실패를 맛봤다. 그의 말을 빌리면, 성공한 축제는 지자체와 싸우느라,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축제는 지원이 끊겨 쫓겨났다고 한다.

그는 다시 소리꾼으로 돌아왔다. “올해 환갑입니다. 인생의 또 한 고비가 온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 정치판에도 끼어들어보고(지난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역임했다), 가사도 탕진해보고(백기완 선생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그는 백 후보의 텔레비전 광고비를 내기 위해 재산을 내놓았다),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창작 판소리 세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창작 판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지요. 이런 제가 문화사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과 더불어 향후 소리꾼 임진택이 한국 문화사에 남겨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안하면 평생 못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나 같은 사



것이 인연이 됐다. 판소리를 배운 적도 없는 그가 작창을 한 것. 그러다 판소리에 꽃힌 것은 1974년 12월 31일 '민청학련 구속자 석방을 위한 문화행사'에서 김지하 시인의 당시 <소리내력>을 판소리로 선보였던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뒤 그는 <똥바다>(1985년), <오월 광주>(1990), <오적>(1993) 등 시대정신을 담은 창작 판소리를

람이 낡은 판을 걷어내고 새 판을 일구는 '새뚝이'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꾼으로 돌아온 건 내 마지막 전업인 것이지요.”

판소리 12바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세종, 이순신, 정약용, 전봉준, 허준, 홍길동, 장보고, 대장금 등 민족문화를 빛낸 위인들의 삶을 앞으로 판소리로 선보이게 될 것인데, 사실 배수의 진을 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년에 1편씩 해도 12년, 6개월씩 선보여도 6년이 걸리는 호흡이 긴 작업입니다.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만큼 의미도 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루 매일 3시간씩 소리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시절, 김지하 영향으로 탈춤과 연극 통해 문화 활동 시작, 74년 '민청학련 구속자 석방을 위한 문화행사' 이후 판소리에 매료**

그가 판소리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동아리 선배인 김지하 시인이 쓴 <비어>를 판소리로 엮은

발표해 왔다.

“1974년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 느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요. 판소리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실 판소리 공연은 이에 앞서 6개월 전쯤 김지하 시인을 비롯해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날, 구치소 안 방에서 수감자끼리 작은 장기자랑 무대가 펼쳐졌는데 그때 <소리내력> 판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판소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는 정권진 선생(심청가 예능보유자)을 찾아가 5년 간 소리를 배웠다.

“겨울방학 때 후배들을 모아 판소리를 배운 게 시작이었는데, 두 달 교육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임 진사, 자네만 따로 더 배워보게’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 뒤 바로 정 선생님의 전수자가 된 셈이지요. 전수자 칭호는 최소 10년 배운 제자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저한테는 예외로 적용해준 것입니다. 점차 쇠퇴해가는 판소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보급하는 그런 남성 제자가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바로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뒤 방송국 피디에서 <똥바다> 창작 계기로 소리꾼 변신 “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광대로 남을 것”**

그가 처음부터 '소리꾼'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 뒤 대한항공을 거쳐 동양방송 피디로 근무했다. 당시 그의 꿈은 드라마 피디였고, 80년 언론통폐합이 있기 전까지 동양방송에서 5년 동안 입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언론통폐합으로 한국방송공사(KBS)로 소속이 바뀌었고, 그 이듬해 '국풍81(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대규모 문화 축제)' 연출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5·18 1주년을 맞아 광주에 쏠릴 국민의 관심을 잠재우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 축제를 기획했는데, 그에게 이 축제의 연출 임무가 맡겨진 것이다. 대학에서부터 독재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그는 이 축제의 연출을 거부했다.

“연출을 거부한 뒤 한 달 간 도피생활을 했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사표를 내게 됐고요. 회사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최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강요된 사직'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를 근거로 현재 손해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방송을 그만둔 뒤 그는 영화판에 들어갔다.

“주로 각색 작업을 했어요. 80년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찬조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장호 감독을 우연히 알게 된 인연도 있었죠. 그리고 후배 장선우가 감독으로 <성공시대>를 만들 때여서 자연스럽게 영화 쪽 분야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4년 창작

판소리 <똥바다>를 만들었고, 이듬해 첫 공연을 한 뒤부터 광대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한국방송을 그만뒀을 때,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광대의 길로 들어설 때 집안의 반대나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을 법하다.

“아내와 달리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출세를 했으면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머니가 바란 출세를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81년 3월 아내가 대학에서 전임이 됐습니다. 79년 결혼한 뒤 2년 동안 남편 노릇 했으니 양해를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죠. 그 뒤 지난해까지 30년 동안 아내가 생계를 꾸려온 셈입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판소리 공연 등으로 조금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시대의 진정한 '재야 소리꾼' 같다.

“예술은 여전히 사회 변혁의 도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예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세상이 참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사람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것이 한때 정치에 관여하려 했던 이유인데요. 지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선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리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광대가 해야 할 일이죠. 판소리도 시대에 따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광대의 역할을 앞으로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글 김미영 | 한겨레신문 기자